

만수산 무량사, 그 구성에 담긴 사유

이성운(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국문요약

원부여 만수산(萬壽山), 무량사(無量寺)는 무량수의 수명 장원을 희원(希願)하는 중생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

9세기 범일 국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무염 국사가 重修하였다는 설 등, 역사가 조금 희미한 편이다. 무량사는 無量壽의 所望 달성을 위해 건립된 원당이며, 15세기 후반 세조의 서자 덕원군(德原郡, 1449~1498)도 『묘법연화경』 간행의 단월로 참여한다. 정유재란 이후 무량사에 미타 삼존불을 조성하고 미륵괘불탱을 조성하는 것도 원당 기능이다.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측에 명부전이 있고, 그 대가 되는 당우로 ‘원통전’이 극락전 우편 우화당 뒤에 자리하고 있다. 불법을 상징하는 석등과 불신을 모신 석탑, 극락전에는 극락삼성이 봉안돼 있으며, 중생의 희원을 거두고 있다.

무량사에 머물거나 떠나가는 은현(隱現)의 수행자가 적지 않았으며, 17세기 초반 무량사는 선종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옛날 설잠 등이 마지막 삶의 안착지, 영육을 의탁할 곳으로 삶아 만수산 기슭

무량사에 들어왔듯이 오늘날에는 장단기 수행(힐링)을 위해 행자들이 무량사를 찾고 있다.

주제어 : 부여 無量寺, 梵日 國師, 無念 國師, 雪峯 金時習,
震默 大師, 彌勒掛佛幀,

- 목 차 -

- | | |
|-------------------|-----------------|
| I. 서언 | IV. 귀환하는 행자의 본원 |
| II. 무량수를 갈구하는 역사 | V. 결어 |
| III. 터와 당우 내외의 인문 | |

I. 서언

만수산(萬壽山), 무량사(無量寺). 옛 이름은 무량수사(無量壽寺)라고 불렀다고 한다. 산명(山名)과 사명(寺名)에는 무량수의 수명 장원을 희원(希願)하는 중생의 간절한 기도가 담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부여 무량사 제4회 무량수 학술 세미나의 기획에 걸맞은 글말의 제목을 찾다가 무량사를 인문학으로 읽어보고 싶었다. 무량사 세미나가 4차에 걸쳐 실시되고 무량사와 구지(舊址)의 문화재 조사 사업 등을 하면서 무량사 관련 보고서와 글말이 제법 쌓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만한 능력이 필자에게는 애초에 없으나 필자의 의식에 맞힌 무량사의 당우 내외의 조상(彫像) 배치 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글말이 애초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량사 구지와 현재의 무량사의 시간적 구성과 공간적 구성을 인간의 사상과 문화의 탐구라는 관점으로 글말을 펼쳐 보겠다. 당연 1차 자료는 무량사를 구성하는 구지와 무량사의 전각과 봉안 성물 등 유형적이 자료들이고, 2차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파편과 전각·성물 등에 관한 연구자들의 글말과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 나들이』¹⁾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량사를 구성하는 과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시간과 구지와 현재의 무량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을 아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량사의 건축과 성물 등을 논의하는 글말의 미시적 관점들은 조금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글말이 인문학적 관점으로 전개하게 되므로 그것의 생산자, 그것들을 향유(享有)한 주체자들의 인식 등으로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9세기 중후반에 무량사가 창건되고 고려 초기 중창되고 조선 중기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중창하며 사세를 떨치던 무량사를 지키며 수행하고 신행한 이들의 사유를 훑아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를 ‘Ⅱ. 무량수를 갈구하는 역사, Ⅲ. 터와 당우 내외의 인문, Ⅳ. 귀환하는 행자의 본원’이라는 장의 제목으로 내세워 각 장을 보완적인 관점에서 글말을 펼쳐 특징을 부각하는 측면으로 나가려고 한다. 각 세 장의 구성은 역사(時), 공간(空), 행자(人)이라고 할 수 있고, 각 장을 두 항목으로 나눈 것은 근본과 지말이라는 상보적 개념들로 나뉘 접근해보

1) 임승덕,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 나들이』(정림사지박물관, 2018, 108-111)에는 무량사관련 문헌자료 및 관련 참고문헌가 정리되어 있다. 또 3회에 걸친 무량사 아미타 학술회의에도 무량사 관련 논문이 14편 정도 발표되었다. 무량사를 인문학으로 읽는 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글말로 만수산 무량사가 지너온 역사와 공간의 구성에 담긴 사유를 일별하면 무량사의 면목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II. 무량수를 갈구하는 역사

1. 희미하게 면면하는 역사

만수산 무량사의 창건과 지나온 이력이 베일 속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연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까닭은 단순하다. 무량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가 희소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조차 근현대 시기에 작성된 자료라는 것이다. <무량사중수기> 현판(1915), <무량사내 극락전중수기>(1931),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무량사중수기>(1932), <무량수중수합>(1953), <무량사약지>(1961) 등 5종류가 그것이다.²⁾ 그러다 보니 자료에서 전해주는 내용이 역사성보다는 신비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료들은 한결같이 무량사의 창건자를 통일신라시대 범일(梵日, 810~889) 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범일 국사는 왕족 출신으로 중국에 유학 후 귀국하여 불교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파의 창시자이다. 범일 국사는 동해 삼화사(三和寺)를 세우고 양양의 낙산사(洛山寺)를 중건하였으며 강릉 신복사(神福寺)도 건립했다. 당시 영동 지역의 사찰은 신라 왕실에서처럼 전통적으로 교학불교를 신앙하였으나

2) 임병고, 「특별강연: 무량사 인문학 강의」, 『제3회 무량사 아미타 학술회의』(무량사, 2021), p.125.

선학불교로 전환한다. 그 중심이 바로 범일이 있다고 추정된다. 범일은 871년에는 경문왕, 880년에는 헌강왕으로부터 국사(國師)로 의봉(擬封)하여 칭함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신라 왕실이 신앙한 교종과 대립이 되는 위치에서 범일은 지방 호족 세력과 결합하여 영동 지역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범일이 만수산 무량사의 창건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주 활동 지역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곳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무량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신비롭고 희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 활동무대와 상관없이 절을 창건하였다는 기록은 많이 보이는 것은 적지 않다. 그렇다고 범일의 무량사 창건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은 이 범일국사 대관령의 국사성황으로 모셔지고 있는 독특한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량사의 역사를 더욱 희미하게 하고, 무량사의 창건을 더욱 신비에 감싸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범일 국사가 무량사를 창건하였다면 적어도 범일이 당에서 귀국하여 귀국한 847년 이후 입적한 889년 사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창건 시기를 문무왕(661~680)대부터 헌강왕(875~885)대까지 약 200년의 시차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무량사 창건의 역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무량사는 헌강왕 대에 무염(無染, 800~888) 국사가 대중수했다는 기록이 〈무량사약지〉에 언급되었다. 무염국사가 무량사에 인접한 보령 성주사를 중심으로 한 성주산문의 개조였다는 사실을 보면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무염국사의 호가 무량(無量)이며, 나말여초의 승려인 대경여엄(大鏡麗嚴, 862~930)이 9세에³⁾ 무량수사로 가서 주종법사에 귀의하여 화엄을

3) 임승덕,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 나들이』(정립사지박물관, 2018, 8-9).

공부하다가 성주사의 광종(무염)에게 입실하였다는 <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보물 361호)⁴⁾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870년경에 무량사가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창건과 중수에 얽힌 범일과 무염이라는 구산선문의 두 개산조가 개입된 것은, 무량사의 역사를 점점 신비롭게 하는 한편 희미하게도 한다. 창건의 시기와 중수의 시기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추측되는데 어떤 연유로 활동 시대가 겹치는 두 시대의 선도적 지도자들과 연결되었을까 하는 점은 무량사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다.

지방 호족 출신의 범일 국사와 중앙 귀족 출신의 무염 국사는 각각 강릉과 보령을 중심으로 선을 펼쳤는데, 무염은 12세에 설악산 오색석사(五色石寺)에서 법성(法性)에게 출가하고, 부석사(浮石寺)의 석징(釋澄)을 찾아가 『화엄경』을 공부하였다. 무염은 821년(헌덕 13) 당나라로 가서 대흥성의 중남산 지상사(至相寺)의 화엄강석(華嚴講席)에 참여하였으나 당나라에서는 이미 화엄학보다 선종(禪宗)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 선법(禪法)을 배우고, 마곡산(麻谷山) 보철(寶徹)에게서 법맥(法脈)을 이어받았다. 20여 년 동안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보살행을 실천해서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렸다. 845년(문성왕 7) 귀국하여 공주 성주사(聖住寺)를 선문 구산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본산으로 삼아 40여 년 동안 교화하였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 도를 구하므로 그들을 피하여 상주(尙州) 심묘사(深妙寺)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문성왕, 헌안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등 여섯 왕이 모두 그를 존경하여 법을 물었고, 제자는 2,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그중 원장(圓藏), 영원(靈源), 현영(玄影), 승량(僧亮), 여엄(麗嚴), 자인(慈忍) 등이 그의 선풍을 선양하여

4)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1994/2014), p.65.

성주산문의 기반을 세웠다. 특이한 것은 무염이 처음 출가하여 수행한 지역은 영동지방이고 귀국한 활동한 지역은 충청도라는 사실이다.

이렇듯이 무량사 창건과 중수에는 진귀조사설을 주장한 범일 국사와 무설토론의 저자 무염 국사에 닿아 있는 사실은 무량사의 역사에 신비성과 희미함이 함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량사구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기와 파편의 명문은 무량사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건덕9년(971)과 중희14년(1045), 청녕병신(1056) 등의 간지명은 당시 무량사의 중수(重修)나 번와(飜瓦) 불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사료들은 무량사의 역사를 전설에서 역사 속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다. 이후 극락전 앞의 5층 석탑이나 석등, 당간지주 등의 석물 등도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그렇지만 아무래도 분명한 건립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왕성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선에 들어오면서라고 할 수 있다. 무량사의 역사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경전과 의궤의 간기이다.

〈표 1〉에 의하면 『능엄경』과 『묘법연화경』에는 시주자가 몰려 있으나 수록제 의문 간행에는 시주자가 없다. 이것은 경전의 공덕 사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 〉 무량사에서 간행된 경전과 의궤

書 名	간행연도	총책수	인물수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1488	3권 1책	25
대불정어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1488	10권 2책	148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493	7권 3책	148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498	1책	51

5) 임승덕,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 나들이』(정립사지박물관, 2018, 32~35).

書名	간행연도	총책수	인물수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1522	1책	5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529	1책	0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529	1책	0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531	7권 7책	8
금강반야바라밀경_육조해_언해	1565		0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에 주로 몰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무량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는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에 등에서도 조금 확인되고 김시습과의 인연은 그것을 더욱 보충해준다. 무엇보다 무량사의 역사를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자료로는 1497년 정유재란의 병화로 인해 사찰이 파괴된 이후 1623년 진묵대사가 중심이 되어 사찰을 중수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을 중건하고 불상을 조성하면서 관련 인물이 등장하면서 희미했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요한 무량사의 역사를 일별해보자. 1623년 탁규 화상이 1623년 불상 봉안의 소임을 맡았고, 1627년에는 미륵괘불탱이 조성되었으며, 1633년 미타삼존 불상이 조성되었다. 1636년에는 범종이 조성되어 14년에 걸친 1차 중수를 완료하였다. 1654년에는 삼전패를 봉안하였다. 1747년에는 삼장보살 탱화를 봉안하였고, 1872년에는 명부전을 건립하였다.

근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무량사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1915년의 <무량사중수기> 현판, 1961년의 『무량사약지』가 그것이다. 한국불교의 전통 사찰들이 역사 정리가 이른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실학의 풍토 아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⁶⁾ 그러다 보니 천여 년 이전의 사실은 구전돼오

⁶⁾ 이 같은 사실은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보인다. 해남 대흥사의 경우 426년 정진 존자

던 것을 문자화하면서 전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운지 모른다.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교적 신비성으
 로 인해 역사보다 신앙적인 면이 중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해서 그것을 사실적이지 않다고 폄훼할 수는 없다. 문자 이전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한 시기가 수백 년, 내지 수천 년 뒤인 것은 고대사나 민족이
 나 부족의 전통은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 만수무강 발원하는 유곡(幽谷)

무량사는 절이다. 절이 무엇인가. 절에 대해 일찍이 스님네들은 절을
 절하는 곳이라고 농반진반(弄半眞半)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의 참뜻과 무
 관하게 그것은 의미 있게 작동한다. 절에 왔으니 절하는 곳이라고 주장
 하며, 절의 본래 의미와 무관하게 절에 와서 불상에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함으로써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사실 크다. 절의 의미를 언어 의미
 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어떤 이론보다 선명하게 대다수는 그것을 수용
 하기 때문이다. 무량사의 첫 이름은 무량수사(無量壽寺)라고 하였다고
 <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는 전해주고 있다. 무량사를 창건한 이가 범
 일 국사든지, 중수한 이가 무염 국사든지 무량사를 창건한 것은 무량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된 원당이라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량사의 창건 연도가 희미하고 선명하지 못할
 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무량사가 창건된 것은, 무량수의 원망을 담아 사찰
 을 건립하고 수명 장원을 기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것쯤은 자명하다.

창건설, 544년 아도 화상 창건설, 895년 도선 국사 창건설이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시기는 1823년 아암 혜장의 『대둔사지』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산사, 한국
 의 산지승원 학술총서 무형유산II』(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7), p.232.

무량사 무량수사의 창건이 범일이든 무염이든 그 배경은 수명 장원을 추구하기 위해 당시 수도 경주와 거리가 있는 깊은 산골에 사찰을 건립할 수 있었던 이들은 지방의 호족이나 왕실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 당연히 궁전처럼 건립하는 사찰을 평민들이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불교의 선문(禪門)이 새로 일어날 무렵 비교적 경주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일이나 무염이 신라 말기 구산선문의 개산조라는 사실은 더욱 그것을 밑받침해준다. 구산선문을 지원한 이들이 사실은 왕실이었고 그들의 후원으로 사실상 국립의 사찰을 건립해 제자를 교육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왕실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는 신앙은 무량사와 같은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량사 구지와 무량사를 감싸고 있는 산명이 만수산(萬壽山)이다. 태조 이방원의 시조에도 등장하지만 만수산은 인간의 소망을 담고 불리게 되었다. 만수산의 무량수는 그렇게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인도 불교에서의 사찰 건립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처음부터 나라에서 사찰을 건립하여 도래한 이국의 스님들을 머물게 했다. 그 역할은 단순하게 스님들을 머물게 하는 거주처를 마련하는 데만 있지 않다. 그들이 머물면서 낯이 신불에 기도하는 것은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처음으로 건립한 사찰인 성문사와 이불란사에 대해 성문사(省門寺)는 각훈이 지적한 대로 초문사(肖門寺)로 와전된 것이고,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지금의 흥국사와 흥복사라고 한다.⁷⁾ 이에 대해 『삼국유사』를 찬한 일연은 이에 대해 틀렸다고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 고구려의 도움과 지금의 도움이 다른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⁸⁾ 일연의

7) 覺訓 撰, 『海東高僧傳』(『韓國佛教全書』6, 90下).

신경질은 일편 이해가 가지만 ‘지금의 흥국사와 흥복사라는 언표는, 당시의 흥국사와 흥복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불교 시대의 불사는 당연히 나라의 흥성과 나라 임금의 복을 기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승려가 머무르는 사찰은 흥국사 흥복사라고 비유적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고구려에서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짓고 승려가 그곳에 거주하며 나라와 임금의 흥성과 복 빌기를 바랐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명칭이 무엇이었던가 간에 그와 같은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신라 최초의 사찰을 흥륜사라고 한 것은, 불법을 퍼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므로 불교의 전파에 초점이 주어지는 명칭이 필요하였을 것이나, 고구려의 경우는 나라의 흥성과 왕권의 공고가 중심이므로 당연히 ‘흥국’과 ‘흥복’이라는 기능이 불사(佛寺)나 불승(佛僧)에 주어졌을 것이다.’⁹⁾

길게 논의했지만 불사를 흥국과 흥복의 기원하는 곳이고, 불승은 그 역할을 하는 이라는 평범한 사실이다. 이것을 간과하면 고대 국가 시절에 사찰의 목적은 따로 있지 않다. 물론 불교 내부의 수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수행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것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사찰을 짓고,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조성하고 염송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공덕을 짓기 위함이다. 공덕을 지어야 현생에서는 수명이 장원하고 내생에는 극락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량사의 역사는 그 역할을 다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왕실이나 호족들의 후원이 끊어지기도 하였을 것이고, 다시 단월을 만나

8) 一然 撰, 『三國遺事』(『韓國佛教全書』6, 313中).

9) 이성운, 「『삼국유사』 「흥법」편의 내용과 특징」,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한국불교학회, 2022), pp.84~85.

부흥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488년부터 무량사에서 경전과 의궤가 간행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93년 김시습의 발문이 있는 『묘법연화경』에 대단일로 덕원군(德原君, 1449~1498.7.22)이 등장한다. 덕원군은 덕원군(德源君)으로도 표기되는데, 세조의 서자로 불심이 강한 왕자였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여 부왕을 정성껏 모셨으며 부왕이 거동할 때에는 항상 배행(陪行)하였으며, 종부시도제조(宗簿寺都提調)를 명받아 종실을 바로 살피고, 선원보(璿源譜)를 관장하였으며, 선왕의 제향소(祭享所) 일을 맡아보았다. 연산조에는 바른 말을 진언하여 잘못된 정사를 다소 시정케 하였다. 선운사 중수를 지원하여 매년 어실(御室)에서 수륙법회(水陸法會)를 열어 왕실과 열성조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이처럼 불사 중수에 공헌한 덕원군이 이곳 무량사에서 법화경 간행의 대단일로 참여하여 왕실의 생축을 발원하고 있다. 이후 1498년 7월 서거하였고, 그해 중동에 무량사에서 결수문을 간행한다. 이때 간행의 목적을 알 수 없으나 왕실의 추천재나 기신재를 위해 결수문 유관으로 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정유재란으로 병화를 입은 무량사를 중수한 목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것도 미타 삼존불을 조성하고 미륵괘불탱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미타는 무량수(無量壽)와 무량광(無量光)으로 번역하듯이 무량한 수명과 광명을 기원하며 불사를 전개한 것이다. 삼전괘 조성은 그것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조 시대는 사찰에서 재회 때마다 삼전 축원을 하거나 <축상작법>을 봉행하였다. 사찰의 역할이 임금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인 이상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이다. 대중이 법당에 가지런히 입장하여 향을 드는 계송을 하고 할향과 연향계를 한다. 그리고 삼보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보례계송을 하고 주상전하의 수명장수를 축원하겠다고 하면서 삼전(주상·왕비·세자)의 축수(祝壽, 수명장수 축원)를 한다. 내용은 이렇다.¹⁰⁾

- 무량수불(無量壽佛)[재칭(再稱)]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무량수불(無量壽佛) [삼창삼답(三唱三答)]
- 약사여래(藥師如來)[재칭(再稱)]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약사여래(藥師如來) [삼창삼답(三唱三答)]
- 석가여래(釋迦如來)[재칭(再稱)] 세자저하수천추(世子邸下壽千秋)
석가여래(釋迦如來) [삼창삼답(三唱三答)]
- 소제장보살[재칭(再稱)] 간과식정국민안(干戈息靜國民安)
소제장보살(消諸障菩薩) [삼창삼답(三唱三答)]
-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재칭(再稱)] 천하태평법륜전(天下泰平法輪轉)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삼창삼답(三唱三答)]¹¹⁾

선창과 후창으로 대중이 임금과 왕비와 세자의 수명을 무량수불, 약사여래, 석가여래에게 청원하고 소제장보살과 치성광여래에게는 국토민안과 법륜상전을 축원하고 광명회상불보살을 삼창삼답한 다음 기경(起經)작법을 하고 대승경전과 다라니를 염송한 다음 다시 삼전축원을 하고 법계축원을 하여 마치는 형식이다.¹²⁾ 이와 같은 국가를 위한 축원은 곧 무량사의 역할을 면면히 이어오게 하는 버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축원은 만수산 골짜기 무량사 극락전 내외에서 끊이지 않은 것이다. 사시(巳時)의 축원을 비롯하여 사시(四時)의 법석과 수륙재 등이 축소되었으나 만수산 골짜기를 목탁과 하늘 목소리로 이어가고 있다. 무량사 창건의 그때부터 오늘의 이 순간까지 천하태평 법륜상전 국제안녕 병혁소멸과 단월의 만수무강을 발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

10) 이성운,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불교문예연구』 11(동방대 불교문예연구소, 2018.8), pp.243~244.

11) 龍腹寺, 『靈山大會作法節次』(『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2, 1634), p.146上.

12) 이성운,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p.244.

Ⅲ. 터와 당우 내외의 인물

1. 터와 당우의 배치

100만 평에 이르는 광활한 만수산 기슭의 무량사, 사하촌을 지나 직접 마주하게 되는 넓은 잔디밭의 평원은 지금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의 무량사의 터이다. 2000년부터 4차에 걸쳐 발굴한 결과는 적어도 7개의 건물기둥이 들어선 장대한 도량임을 알 수 있다. 앞편의 제6건물지는 금당으로 추정되고, 뒤편의 제1건물지는 강당으로 추정되며, 10세기 후반 무량사의 대대적인 중수를 짐작할 수 있다.¹³⁾ 기타 부속 건물기둥이 있을지라도 그 핵심은 금당과 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금당은 오늘날의 불전 곧 대웅전이다. 통일신라 시기 축성된 사찰의 특징은 1금당, 2금당이 있다고 하지만 무량사 구지에는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1금당이라고 할 수 있다. 금당이 금당으로 불리는 것은 그곳에 주인이 금인(金人)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붓대를 금인이라고 불리는 역사는 중국불교 초전기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한의 무제가 기원전 121년 서방에서 금인을 획득하여 예배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동한 명제가 67년 꿈에 금인을 만나게 되고 사신을 월지국으로 보내 불상 경전 승가 등을 청하게 된다는 기사가 그것이다.¹⁴⁾ 붓대의 몸은 항상 금색으로 칠하게 되어 금인을 붓대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금은 불변의 최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지와 현재 그 서쪽의 무량사를 가르는 실개천이 흐른다. 구지와 현재의 무량사를 가르는 실개천에 수량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냥 건널 수는 없고 다리가 놓여 있다. 극락교가 그것이다. 무량사를 중수할 17세

13) 임승덕,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 나들이』(정림사지박물관, 2018, 17~9).

14) 『佛祖統紀』卷34(T49); 『歷代三寶紀』卷1(T49); 『廣弘明集』卷1(T52) 等.

기 초반에 극락전을 중건했다고 보이는데, 구지와 현재의 극락전과의 관계는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구지의 서쪽 실개천을 건너, 구지에서 보면 서편 저곳(彼岸)에 극락전을 중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지에는 중건이나 중수를 구지에 하지 않고 서편에 했다면 구지의 상황이 그곳을 정리하고 금당이나 강당을 중수할 형편이 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다. 당시 그곳은 고통이 가득한 현실의 차안(此岸)이었을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해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듯이 서편 언덕을 다지고 무량사 극락전을 중건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극락전 앞의 오층석탑이나 석등은 고려 시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중건 당시에도 오층석탑이나 석등이 현재 자리에 있었지는 알 수 없다. 만일 구지의 금당 앞에 세워져 있었다면 탑과 등은 이건(移建)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구지의 금당 앞에 탑전이 아직 확인된 자료는 없으나 일반적인 금당 내외의 배치로 볼 때 금당 앞에 탑과 석등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7세기 무량사 극락전을 중건할 당시의 당우 배치는 알 수 없다. 현재처럼 극락전 앞 좌측에 명부전이 있고, 명부전에 대가 되는 당우로는 관음전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관음전은 '원통전'이라는 편액으로 극락전 우편 우화당 뒤에 자리하고 있다. 또 원통전 옆에 나한전이 '영산전'이라는 편액으로 영산전보다 서남쪽에 자리한다. 극락전, 명부전, 원통전, 영산전이 단월(檀越)이나 신도들의 사실상 종교적 귀의처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일주문이 무량사의 시작을 알리는 위치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무량사의 부도전이 그로부터 수백 미터 앞 개울 서편 언덕에 자리한다. 예전에는 무량사를 진입하는 길이 부도전 옆 개울의 서편 길로 다녔다고 하지만 지금은 길이 없다. 만약에 그곳으로 출입했다면 일주문 이전의 일일 것이다. 무량사 구지가 중심이라면 사하촌 앞으로 지나 현재와 같은 출입 동선에서 조금은 동쪽으로 길이 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터를 정해서 당우를 짓고 그곳에 신불을 모시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세상

과 통하는 길을 내고 그곳으로 세상과 성소를 연결하였을 것이다.

현재 무량사로 진입하는 동선은 일주문을 지나 극락교를 건너 사천왕문을 넘어 극락세계로 들어서는 구조이다. 일주문을 지나 극락교를 건너는 모습은 중생이 한 길로 나아갈 때 극락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사천왕을 통과해야 극락으로 완전하게 들어선다. 사천왕을 지나면 석등과 오층석탑이 일렬 선상에 모셔놓았다. 극락전의 불상과 오층석탑과 석등이 일렬을 유지하고, 또 예배자의 우측의 명부, 중앙의 극락전 좌측의 영산과 원통전을 조성하여 전통 전각 조성법을 따르고 있다.

2. 존상에 담은 희원(希願)

무량사에는 전각과 탑, 등, 중, 문에 시설하였고 전각이나 문에는 신불을 모셔놓았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신불은 사천왕이다. 사천왕은 호세사천왕이라고 한다. 호세, 곧 세상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천왕이라고 한다. 천왕은 각 방면을 지키므로 동·남·서·북의 방위에 따른 천왕이 존재한다. 동방은 지국천왕이라고 하고, 남방은 증장천왕이라고 하며, 서방은 광목천왕이라고 하며, 북방은 다문천왕이라고 한다. 천왕들은 모든 나쁜 악귀들이 중생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라니집경』 권11에 의하면 사방에 머물러 국가를 호위하고·적의 난을 물리치겠다는 서원이 심중하다고 한다. 사천왕의 발밑은 악인을 짓밟고 있다. 세상을 지키고 있으므로 칼과 같은 무기와 각각의 상징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모시고 있다. 무량사를 비롯하여 국내 사찰의 사천왕은 사천왕문에 모시고 있는데, 대만 중천사의 경우 사천왕전이라는 당우를 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방에서 세상을 지키는데 사방을 천왕을 지나야 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사찰마다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 등의 배치가 일정하

지 않다. 무량사의 사천왕문은 사실상 무량사 극락전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량사의 사실상 정문 사천왕문을 들어서면 정중이다. 정중에 이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불물(佛物)이 석등이다. 석등은 불을 밝히는 등이지만 정중에 배치된 등은 왕릉이나 무량사 영산전에 장명등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불법의 광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찰의 석등 앞에는 배례석이 놓여 있다. 불국사나 부석사 불당 앞의 석등에서 바로 확인된다. 등은 불법의 광명을 표시한다면 다음의 오층 석탑은 붓다의 사리를 모신 곳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탑은 스투파의 약칭이다. 스투파는 붓다의 유골을 안치한 모덤이다. 붓다 입멸 이후 붓다를 예경하는 이들이 예배하는 곳이다. 불상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붓다를 상징하는 최고의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불교 예법에 익숙하지 않은 순례자들은 탑에 반배하거나 목레만 올리고 불당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붓다의 상징인 탑은 불전 앞의 장식물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기보다 실내의 불상에 그 역할을 내주게 되었다. 탑과 불당 사이에도 붓다를 상징하는 괘불주가 있었다. 불과 몇 년 전 괘불주를 불당의 중앙에서 우측에 치우치게 설치한 적이 있다. 중앙에 괘불주가 들어서야 하지만 우측으로 치우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다. 불당 중앙의 탑을 비켜 공간이 확보된 것을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괘불주를 공간 개념으로 설치하는 예는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석탑은 붓다를 상징하는데 괘불대의 붓다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재회의 시작을 위해 입장할 때 석탑을 우요삼잡하고, 또 재회를 마치고 떠나갈 때도 석탑을 우요하며 떠나간다. 그러므로 정중의 석탑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야외 재회와 법석의 중앙에서 예배지는 재자의 우요삼잡과 예경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신 것이다. 왜 그러면 그분은 (석탑으

로 석등으로) 그 자리에 계실까. 중생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장보살 탄백에는 ‘견문첨례일념간(見聞瞻禮一念間) 이익인천무량사(利益人天無量事)’라고 했다. 그분을 뵈고 한순간 동안이라도 눈으로라도 인사하면 인천의 이익이 무량하다는 것이다. 중생들이 예배하여 무량한 이익을 얻게 하고자 그렇게 서 계신 것이다. 『법원주립』에는 백천 금으로 하더라도 한 번 선심으로 공경히 불탑에 예배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며,¹⁵⁾ 예배의 다섯 가지 공덕을 나열하고 있다. 첫째는 단정하게 되고, 둘째는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되고, 셋째는 재물이 많아지고, 넷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되고, 다섯째는 천상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무량사의 주전 극락전은 2층 형식이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통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량한 공덕의 상징인 극락을 표현한 극락전의 내부에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이 좌정해 계신다. 극락의 주불 아미타불은 전세에 정광여래 붓다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법장 비구로 수행하였다. 법장 비구는 한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서 깊은 환희심을 내어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法藏)이라고 하였다. 재주가 뛰어나고 용맹스러워 세상에서 비길 자가 없었다. 법장 비구는 잘 알려져 있듯이 ‘붓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룩하여 청정 미묘한 국토로 장엄하겠사오니, 제가 이번 생에 빨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게 하여 주소서.’¹⁶⁾라고 서원하며 48가지 발원을 하게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발원은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18번째의 원이다. 원을 보자. “제가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적에,十方세계의 중생들이 다 저의 건립한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열 번을

15) 『法苑珠林』(T53, 581b).

16) 康僧鎧譯, 『佛說無量壽經』(T12, 267b).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다 이루지 않고 붓다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인과 정법을 비방한 이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¹⁷⁾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의 처음은 삼악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삼악도가 무엇인가. 지옥·아귀·축생이다. 지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 아귀는 배가 고픈 세계이며, 축생은 어리석은 세계를 뜻한다. 이것들의 소멸을 바라는 데는 왕후장상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당연히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게 되므로 아미타불의 극락을 발원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아미타불의 극락은 현생과 내생을 이어주는 곳이다. 해서 그들은 이번 생에는 장수와 부귀를 바라고 다음 생에는 안락한 나라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면서 아미타불께 절하며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좌우에서 보처하는 보살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경우 독립된 위치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극락삼성으로 자리할 때의 특징은 ‘심제관(審諦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불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염불작법의 다음 계송은(장엄염불의 계송이라고 알려져 있음)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극락세계 보배 연못에 차바퀴 같은 구품연화대의
 금빛의 미타 장육상 서 계시고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내리고
 초록빛 의상에 홍가사 수하고 금빛 얼굴 미간에 흰 털이 빛나네.
 좌측에는 관음보살 우측에는 세지보살 시립해서 자세히 살피시네.
 몸은 금산의 담복화같은 성자 관세음께 귀명하며
 몸은 지혜 광명 유연세계 비추시는 성자 대세지께 귀명하네.
 세 분 성인 공덕은 그 수가 진사겁을 넘어 허공 같아서

17) 康僧鑑譯, 『佛說無量壽經』(T12, 268a).

시방의 제불이 찬탄해도 진사집 동안 해도 다할 수 없이라.¹⁸⁾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시립(侍立)하는 연유는 관찰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려는 목적이다. 무엇을 관찰하는가. 세상에서 선업을 닦고 있는 이들을 살피는 것이다. 계송은 서 계신다고 하였는데 실제 무량사 삼존불에서 좌우의 시립자가 서 있지 않고 앉아 계신다. 그러다 보니 그 크기가 높다. 아미타불도 장육존상(480cm)이라고 하였는데, 무량사 아미타불상은 좌상이나 그 크기가 장육(丈六)을 넘고(520cm), 시립자 또한 비록 좌상임에도 장육에 이른다(437cm). 아미타불을 장육상으로 모시고 그 시립자를 좌상으로 모시면서 그에 버금가게 조성한 것은 염원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분 성현의 공덕이 허공과 같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보신이라고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 염원의 크기를 수용하여 나라와 인민의 평안을 갈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량사 구성의 의도와 그 미학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량사 극락전의 좌우에서 시립하는 전각의 위치가 일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좌측의 명부전은 옆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나가 앉았고, 우측의 원통전은 우화궁 뒤편에서 독립되어 있다. 사찰의 건립 방식은 주불을 중심으로 그 역할에 따라 동심원을 그려가면 전후 좌우에서 그 역할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좌우에 명부전과 관음전이 주로 시립하는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 이전에 이와 같은 형식이 도입될 당송 때 불전이나 법당의 좌우에는 조사전과 가람전이 배치되는 예가 있었다고¹⁹⁾ 한

18) 安震湖 編, 『釋門儀範』上卷(만상회, 1935/1984, 84). “極樂世界寶池中 九品蓮華如車輪 彌陀丈六金軀立 左手當胸右手垂 綠羅衣上紅袈裟 金面眉間白玉毫 左右觀音大勢至 侍立莊觀審諦觀 歸命聖者觀自在 身若金山蔭荷花 歸命聖者大勢至 身智光明照有緣 三聖所有功德聚 數越塵沙大若空 十方諸佛咸讚嘆 塵劫不能窮少分”

다. 한쪽은 불법을 상승하고 한쪽은 불법을 외호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사찰 주전의 좌우 시립 전각의 명부전과 관음전은 어떤 의미로 건립되었을까. 그 답은 종합 불교의례라고 할 수 있는 수륙법회에서의 역할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관음보살은 업장을 소멸해주는 역할을 지장보살은 정업을 소멸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붓다의 역할이 깨닫지 못한 중생을 깨닫게 하는 교화에 있고, 보살은 자신의 성불을 미루고 붓다를 도와 이를 보좌하기 때문이다. 관음보살이 원통전에 별도로 모셔지고, 지장보살이 지장전에 모셔질 때는 각자의 세계를 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관음보살이 원통전에 모셔지는 경우는 독존으로 능엄경 등의 사상에 입각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지장보살이 무독 도명존자의 시립을 받으며 명부전에 증명보살로 계시는 것은 『예수시왕생칠경』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명호의 불보살이 각자의 역할이나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불교 교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의도는 추상적인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바로 지금 나의 바람을 내가 실현할 뿐이다.

영산전은 500나한을 모신 전각인데, 나한은 붓다 입멸 후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의 세계에 머물며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주는 것이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나한 신앙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점차 사후의 명부 시왕에게 권공하고 업장 소멸을 기도하는 시왕에게로 나아갔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명부시왕의 증명보살인 지장보살이 사후 존재들을 위한 신앙의 중심에서 있게 되고 생전의 신자들은 관음보살의 대자비를 구하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신앙은 시대에 따라 늘 새롭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上海: 知識出版社, 1982), 33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의 중심은 어디일까. 무량사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전각이 있다. 우화궁(雨花宮)이다. 우화²⁰⁾는 세존에 열반에 들었을 때 내린 꽃비라고 할 수 있다. 우화는 만다라고도 하고 여러 하늘 허공에 순수한 참된 금의 즐기라고 한다.²¹⁾ 다시 말해 붓다의 열반 이후 붓다의 가르침을 지키는 핵심이 되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무량사에서는 주지의 거처이다. 주지의 거처는 분향각, 향로전 등으로 불렸는데, 무량사의 주지실은 우화궁이라고 궁이라는 편액을 걸어놓았다.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잇는 살아 있는 붓다가 거처하는 궁전이라는 의미로 편액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인당(人堂) 최고의 격을 부여하여 후학들에게 붓다를 잘 ‘시봉(侍奉)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거창한 편액을 걸게 되지 않았을까. 우화궁에 역대 모든 주지 스님들이 거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주지 거처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우화궁의 주련은 진묵대사의 시라고 하나 확인하지는 못했다.

무량사의 종각은 좌종우고라는 좌종이 제대로 갖춰졌다. 다만 우고의 고각이 없다. 현재 고각의 자리에 종무소가 들어서 있다. 회랑형 불국사의 정문 양 끝에는 우고와 좌종 자리만 있다. 하지만 용주사의 경우는 불당 앞에 종각과 고각이 좌우에 나란히 서 있다. 이 두 곳의 종과 북은 신심을 돋우거나 번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의미와 신호기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다. 그 소리를 통해 중생들은 마음을 내리기도 또 신심을 북돋우기도 하는 것이다.

20) 『別譯雜阿含經』(T2, 413c).

21) 『佛本行集經』(T3, 0891c).

IV. 위환하는 행자의 본원(本源)

1. 은현(隱現)의 수행자

사찰은 출가자가 거쳐하며 수행한다. 사찰의 역할은 사실 출가자의 수행자라고 하기보다는 재가 신자의 복전(福田)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왜인가? 사찰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찰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찰의 '사(寺)'자는 관공서를 의미하고, 찰은 영지 토지 경지를 뜻하는 범어 ㄱ세트라(kṣetra)의 음역어이다. 그간 사찰의 '찰'자가 찰나(刹那)의 '찰'자와 음역어가 같아 ㄱ사나(kṣaṇa)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ㄱ세트라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활동의 범위나 소재지라는 물질적 공간이라는 의미와 '본원(本源)'·'성지(聖地)'·'자궁(子宮)'·'대복전(大福田)'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관공서의 성격과 복전의 의미 등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사찰, 절의 성격은 절을 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곳이 되며 결국 '복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생들이 복을 짓는 곳이 된다는 곳이다. 중생들이 복을 짓는 곳이 절이다.²²⁾

복을 짓는 곳의 사찰(kṣetra)과 수행하는 곳이었던 '비하라(vihāra, 精舍)'의 경계가 조금은 모호해지면서 사찰이 '비하라'적인 역할을 주로 하거나 왕후장상의 원당(願堂) 역할을 주로 하게 되면서 사찰은 경건해야 하고 한정된 이들만이 출입하게 되면서 대중들은 거리가 느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회자 되는 격언의 하나가 '오는 이를 막지 않고 가는 이를 잡지 않는다'라는 것이라

²²⁾ 이성운, 「정토사의 중창과 그 문화의 향기」, 『높은 절터 평택 정토사의 역사와 문화재』(불교의례문화연구소·정토사, 2018), p.18.

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에 대한 유래는 다양할 수 있다. 인연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오는 이를 막지 않는다는 것은 사찰의 무차재회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차(無遮)로 재를 공양한다고 하면서 오는 이를 차별하여 못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 여전히 사찰에는 다양한 수행자가 출입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모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허공에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그렇게 사찰에 머물거나 떠나가거나 하는 모습은 은현(隱現)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현상을 은현이라고 하는데, 은현은 혼령을 맞이하는 영혼식(迎魂式), 곧 대령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부앙은현(俯仰隱顯現)’ 고개를 숙이면 숨는 것이고, 고개를 들면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며 사찰을 지켜낸 행자를 말하고,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름을 내 세우고 수행과 불사에 전념한 이들이다. 9세기 중반 이후에 무량사가 창건되었다고 보면 적어도 무량사의 역사는 1200년이 넘는다. 그간에 무량사를 거쳐간 수없는 행자가 있었을 것이다. 9세기 중반의 대경 여엄이 무량사에 와서 주종 법사에게 화엄을 공부했다고 했다. 주종 법사와 대경 여엄은 창건 초기 무량사의 수행자로 드러난 수행자일 것이다. 그리고 15세기 말 경전이나 의궤 간행 시 시주질에 이름을 올린 수행자들도 이름을 드러낸 행자라고 할 수 있다.

경계의 간행이나 발원문의 시주질 산중질 등은 무량사를 거쳐 간 수행자이다. 그 정점에 17세기 초반 무량사의 중건에 나선 진묵 대사가 있는데, 대사의 영적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무량사 이야기이니 그 영이한 기적을 조금 읽어보자.

세상에서는 대사를 석가모니의 후신이라 하는데 이로써 보더라도 그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한 번은 승주 송

광사와 홍산 무량사에서 마침 동시에 불상을 조성하면서, 모두 진묵 대사에게 사찰에 와서 앉아 불사를 증명해(坐證) 주기를 [550] 청했다. 그러나 대사는 어느 절에는 가고 어느 절에는 안 갈 수가 없으므로 두 절에 다 가기를 사절하고 오직 각각 물건 한 가지씩을 주면서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말대로만 하면 불상은 다 지극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조성한 뒤로는 함부로 개금하지 말라.” 하고 무량사에서 온 스님들을 돌아보면서 “또 너는 너의 절 화승(化僧)에게, 불상의 점안이 끝나기 전까지는 밖에 나서지 말라고 일러라. 이 말을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디 가는 길로 꼭 말해라.” 하며 간곡히 부탁하며 보냈다. 두 절의 스님은 각기 돌아와서 다 대사가 이르는 대로 행하는데,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拄杖子)를 중단 위에 세워 놓았더니, 그것은 밤이나 낮이나 조금도 비뚤어지는 일이 없이 꼳꼳하게 서 있었고, 무량사에서는 수주(數珠)를 증석(證席)에 안치하여 두었더니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빙빙 돌아다니며 웅웅하는 소리를 내고 울었다.

그런데 마침 무량사에서는 홍산 어느 신도가 홀로 3천 금을 내서 삼존상을 조성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온다고 한 때가 되어도 오지 않으므로 화주승(化主僧)은 기다리다 못하여 그만 갑갑증이 나서 대사가 한 당부한 말을 잊고 절문 밖에서 바라보려고 막 발을 문밖에 내어 디디자 뜻밖에 몸을 투구로 무장한 한 신중이 나서서 번쩍하고 철추로 내려치는 바람에 당장에 즉사하고 말았다.²³⁾

이 글은 초의 선사가 기록한 <진묵대사유적고>인데 무량사의 증건자 진묵대사의 이야기이다. 설화에 의하면 진묵 대사는 실제 무량사에 오지

23) 정두석, 『佛敎說話全書』(한국불교출판부, 1990), pp.449-550.

않고 염주로 증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불사를 증명한 기록이 14년간의 불사의 주체자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설화는 신뢰할 만하다. 실제 각 전각의 봉안 불상들을 조성한 것은 탁규 화상이라는 것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싶다. 미륵괘불탱이나 동종의 시주자 가운데 미륵불괘 탱은 시주자를 먼저 기록하고 있으나 동종에는 비구 스님들이 먼저 기록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조계종 대선사 필규 비구, 충청 도관사 덕해 비구 등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대선사 비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세종조에 통합되어 선교 양종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종명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후에 사찰의 유나 비구와 지전, 지사 비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17세기 초반 무량사는 선종의 사찰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발원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사와 도관사 등이 무량사에 머물러 이름을 드날리며 수행하였고, 유나나 지전, 지사들이 사찰을 지켰을 것이다. 그 이름을 화려하게 드날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수많은 출가 스님들이 무량사의 역사를 지키고 사찰 본연의 임무를 다해왔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 진묵 대사가 무량사에 오지 않고 무량사에 와서 증명하였듯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행자가 귀환하는 본원의 역할을 무량사가 다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 귀환하는 재가 행자

현재 만수산 무량사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때부터 활성화되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옛날 설잡 등이 마지막 삶의 안착지, 영육을 의탁할 곳으로 삶아 만수산 기슭 무량사에 들어왔듯이 오늘날에는 장단기 수행(힐링)을 위해 재가의 행자들이 무량사를 찾고 있다.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과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행을 위해서이든 불사를 위해서이든 장단기의 힐링을 위해서이든 무량사를 찾는 이들은 다 귀환하는 행자라고 할 수 있다. 귀환은 무엇인가.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돌아오는 것과 돌아가는 것은 정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논자의 설명대로라면 귀환하는 것은 반대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 같은 것이다. 돌아가는 것은 세속 저편에서 보는 시각이고 돌아오는 것은 성소 무량사에서 보는 것일 뿐이다. 결국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돌아오고, 돌아가는가. 돌아오는 이를 맞이하는 것은 무량사의 아미타불 등 세 성인과 그 권속이다. 돌아가는 것은 세속의 시비와 영광을 뒤로 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직 돌아가지 못한 세속의 관점이다. 처음에 돌아왔던 여염 행자는 보리사의 대경 대사가 되었고, 16세기 말 무량사로 돌아오고, 세속에서 보면 무량사로 돌아간 설잠 김시습은 이후 무량사의 격을 또 다른 차원을 만들었다.

설잠 대사가 사후에 곧바로 화장하지 않고 3년 뒤에 하계 하는 모습은 한국불교에 생경한 모습이다. 하지만 설잠 대사가 불문을 드나들며 닦았던 유불도를 그가 이곳 무량사에 그 완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시습에 대한 자료는 적지 않고 이곳 무량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²⁴⁾ 필자는 거기에 단 몇 줄도 더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 그렇다.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나 필자 또한 예전에 김시습의 귀환을 그리워하며 이곳을 찾은 적이 있다. 왜 하필이면 반도를 두루 섭렵한 김시습이 이곳 만수산 무량사를 찾았는가 하는 점이다. 김시습은 1453년 계유정란을 만나고, 또 1455년 세조의 왕위 찬탈을 목도하고,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불문에 든다.

24) 소종섭, 「김시습과 무량사」, 『제1회 무량사 아미타학술회의』(무량사, 2019), p.17.

어쩌면 김시습이 불문에 귀의한 것은 능동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상의 부정에 대한 개탄으로 택한 길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15세 때 어머니를 잃고, 3년도 채 되지 않은 때 자신을 돌보던 외조모를 잃는다. 또 오세 신동이라고 인정한 세종대왕의 죽음도 접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김시습은 불문에 들었으나 일정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김시습이 불교의 경전을 해석한 것도 있으나 불교 교학의 해석에 그리 큰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가 남긴 『탕유록』 등의 시편은 그의 한없이 넓은 성품이 드러난다.

그런데 매월당 전집 2/3를 차지하는 시편 가운데 무량사에서 지은 시가 한 편밖에 없다는 것은²⁵⁾ 사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천하의 김시습이지만 이미 늙어 몸은 병들었다. 또 더 언어유희, 문자 놀음으로 심경과 세상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말을 떠난 세계에 들어서려고 했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지은 무량사에서 지은 단 한 수의 한시에서 잘 드러난다. “각공타승작법거량(却恐他僧法舉揚)”이라고 하는 것이다. “향생욕문서래의(向生欲問西來意)” 다른 이들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어보고 싶었으나 오히려 천하의 김시습이 자신들에게 법을 거양하지는 것으로 받아들일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김시습이 마지막으로 가진 의문이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였던 것 같다. 김시습의 인간적인 내음이 물씬 풍긴다.

생을 마감할 무렵이 되었지만 명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교학이나 선법을 다 잘 이해하고 해독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하는 것들을 묻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물어볼 수 없는 풍토였던 것 같다. 공연히 선문답이나 법 거양

25) 최영성, 「한시를 통해서 본 무량사와 김시습」, 『제2회 무량사 아미타학술회의』(무량사, 2020), pp.4-6.

(擧揚)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별무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을 염려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 당연히 세상은 천재를 수용할 만한 세상이 물론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만수산 무량사로 돌아가 발길을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량사에서 무량한 생명을 그는 바랐다고 볼 수 있다. 나고 죽는 반복된 삶을 떠나는 삶을 그는 이곳 무량사에서 추구함이 없이 추구하였다고 보인다.

이후 한 세기가 지난 뒤 해동의 석가라고 불린 진묵 대사가 무량사에 오지 않고 무량사에 와서 불사를 증명하였듯이 말이다. 조선의 유명 산하를 섭렵하고 네 탕유록을 남길 정도의 김시습이 자신의 종신지를 무량사로 택했다는 것은 무량사가 진정한 행자의 귀환처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아닐까 한다. 재가의 신자든 출가의 행자든 진정한 행자에는 무량사는 귀환의 본원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 이곳은 무량(無量)토록 만수(萬壽)하는 터이니까 말이다. 어찌 그렇게 되는가? 불교의 바른 수행을 통해 열반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어

만수산 무량사를 인문학으로 읽어보자는 취지 아래 글말을 시작하였다. 인문학이 따로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사찰과 그곳의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 낸 최상의 걸작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찰과 당우 그리고 그곳에서 거처하며 수행해 만들어가는 그들의 문화는 왕후장상에서 민초(民草)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적합한 처방 역을 주어 그들의 아픔과 원망을 이루게 한다. 해서 사찰에 관계하는 일체 물생들은 단순히 사찰을 짓고 예경하며 장수와 복록을 빌고 고통을 해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치유하며

물생을 살린다.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사찰의 인문학이고, 사찰을 인문학으로 읽으며 그곳에 담긴 의미와 이해와 인식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사찰을 철학으로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대상으로 만수산 무량사를 인문학으로 읽고 철학해 보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는 못했다. 무량사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희미하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비교적 선명해졌다. 또 초지일관하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 있다. 또 드넓은 무량사의 구지와 현재의 무량사가 당우의 유무로 대별되며 차안과 피안을 형성한다. 이제 피안에서 다시 차안(舊地)으로 무량사가 다시 건너가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비록 구지의 조사보고에 그치고 있지만 어떤 형태이든 본래의 역할을 되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무량사의 2층 극락전의 위용은 사실 한국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그렇지만 무량사의 당우는 통일 신라 시대의 회랑식도 조선 후기의 사동정중형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위치를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불보살의 영험을 받아 가는 행자가 돌아와야 한다. 현재 불탄일의 무량사에는 2, 3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이제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닦는 귀환처로 이곳으로 돌아오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크고 작은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불사의 한 가운데 진정한 불사는 무량사를 수호하는 행자라고 할 수 있다. 출가든 재가든 무량사에 바람을 내리고 마음을 내릴 행자들이 귀환하는 만수산 무량사로 거듭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무량사가 무량토록 만수(萬壽)하는 도량이 되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新修大正大藏經』: T

『別譯雜阿含經』(T2).

『佛本行集經』(T3).

『佛說無量壽經』(T12).

『佛祖統紀』卷34(T49).

『歷代三寶紀』卷1(T49).

『廣弘明集』卷1(T52).

『法苑珠林』(T53).

覺訓 撰, 『海東高僧傳』(『韓國佛教全書』6).

一然 撰, 『三國遺事』(『韓國佛教全書』6).

龍腹寺, 『靈山大會作法節次』(『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2).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학술총서 무형유산II』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7),

安震湖 編, 『釋門儀範』上卷(만상회, 1935/1984).

정두석, 『佛教說話全書』(한국불교출판부, 1990).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上海: 知識出版社, 1982)

소종섭, 「김시습과 무량사」, 『제1회 무량사 아미타학술회의』(무량사, 2019).

이성운, 「『삼국유사』 「홍법」편의 내용과 특징」,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한국불교학회, 2022)

이성운, 「정토사의 중창과 그 문화의 향기」, 『높은 절터 평택 정토사의 역사와 문화재』(불교의례문화연구소·정토사, 2018),

이성운,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불교문예연구』 11(동방대 불교문예연구소, 2018.8)

-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1994/2014)
- 임승덕,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 나들이』(정림사지박물관, 2018)
- 임병고, 「특별강연: 무량사 인문학 강의」, 『제3회 무량사 아미타 학술회의』(무량사, 2021)
- 최영성, 「한시를 통해서 본 무량사와 김시습」, 『제2회 무량사 아미타학술회의』(무량사, 2020)

Mansusan Muryangsa, the thoughts contained in its composition

Lee, Sung-woon /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Mansusan Mountain and Muryangsa Temple at Buyeo contain the earnest prayers of the sentient beings, who wished for their infinite longevity. Muryangsa Temple does not have a clear history related to its building. It is said that a National master, Beomil created it in the 9th century and that National Preceptor, Muyeom renovated it. Muryangsa Temple was Wondang(願堂, The Dharma Hall for the royalty) built to achieve the wish for infinite longevity, and Deokwon-gun (1449-1498), a son of King Sejo's concubine in the late 15th century also participated as a benefactor for the publication of the Lotus Sutra of the Wonderful Dharma (妙法蓮華經, Saddharma Puṇḍarīka Sūtra). After Jeongyujaelan (The second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y created the Triad Buddha centering Amitabha and the Buddhist Hanging Scroll of Maitreya in Muryangsa Temple, which is one of the roles of Wondang. Hall of the Judgement of the dead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Amitabha Hall, and the Hall of the Bodhisattva of Compassion is located on its left side and behind Flowery Rain Hall. It has the stone lantern symbolizing Buddhism, the

stone pagoda dedicated to the Buddha, and the threefold saints enshrined in Amitabha Hall. All of them are reaping the wish and prayers of all sentient beings.

Many monks and hermits stayed at or dropped by Muryangsa Temple, and it seems to have been a temple of the Seon School(禪宗) in the early 17th century. In the past, Seoljam and others stayed at Muryangsa Temple at the foot of Mansusan Mountain as a final settlement of life or a prop for their body and soul. As it was, today the followers are visiting Muryangsa Temple for short and long-term meditation or healing.

Key words : Muryangsa Temple at Buyeo, a National master Beomil,
Seoljam Kim Siseub, a Buddhist master Jinmook,
the Buddhist Hanging Scroll of Maitreya

원고접수: 2023-03-30	심사완료: 2023-04-16	게재확정: 2023-04-22
------------------	------------------	------------------